



4면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내 '우주로 1216'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전주매일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음 10월 5일) 제266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테러 진압 시범 선보이는 전북경찰특공대' 전북경찰특공대 대원들은 18일 완주군 전북경찰특공대에서 열린 창설식에서 대테러 진압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분리수거함 주변 '쾌적하게' 전주시, 관리인력 배치한다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창출 등 '1석 5조' 효과

전주시가 내년부터 단독주택 분리수거함 주변에 500명의 관리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분리수거함 주변 관리인력 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수거업체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쓰레기 처리 예산 절감에 환경까지 지키는 1석 5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지난달부터 중앙동, 완산동 금암2동, 인후2동 등 단독주택이 밀집된 4개 동에서 시범 운영해온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리인력 배치 사업을 내년부터 35개 동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주변에 관리인력을 투입해 하루 5시간씩 분리수거함을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온라인 유튜브 및 배달음식 급증으로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단독주택 분리수거함 주변이 쓰레기로 넘쳐나는 상황을 해결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이와 관련, 현재 4개 동에서 운영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품이 혼합 배출되고 불법투기가 빈번히 발생해 지저분했던 분리수거함 주변이 눈에 띄게 정결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는 업체의 작업시간이 줄고 노동강도가

낮아진 것은 물론이고 재활용품별장도 기존 반입된 재활용품 중 일반 쓰레기로 선별해 처리해야 되는 양이 6%에서 시범사업 이후 15%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4개 동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분석·검토한 뒤 내년부터 전주시 35개 동 전 지역에 노인일자리 인력 500명을 투입해 분리수거함 주변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이 확대되면 분리수거함 주변이 청결해져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활용률이 높아져 환경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체와 재활용선별장의 작업량이 줄어들고 시에서 지급하는 잔재를 쓰레기 처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가 노인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의 소득이 보장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선5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환경문제는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번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리인력 배치를 계기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전주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성기자

도내 가야역사 실체를 밝힌다

전북도, 온라인 생중계 학술대회 갖고 성과 정리 봉화·제철유적 등 주제 토론... 역사적 위상 정립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예정

전북의 국가사적 제552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2022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앞두고 전북가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진다.

전북도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전북의 가야 관련 문헌 연구와 유적 발굴 성과를 종합 정리하고, 전북지역 가야의 역사적 위상을 정립하고자 오는 20일 호남고고학회(회장 최인선)와 함께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야사 복원은 영호남 화합을 목적으로 한 국정과제로 떠오르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전북도는 가야 유적 정비 및 지속적인 발굴 사업을 통해 전북지역의 가야사 실체를 밝히는 데 힘쓰고 있다.

전북의 가야 문화권은 남원과 장수를 중심으로 등부권 7개 시군을 아우르며, 이 지역 일대에서 발견된 봉수(봉화대)와 고분, 제철유적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지난 9월 전북의 가야 유적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보로 선정되어, 내년 유네스코의

현지 실사 방문을 거쳐 내후년인 2022년 최종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북지역 가야 고분과 봉화, 제철유적 등에 관한 9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되며, 최완규 교수(원광대)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최완규 교수는 전북지역 미한·백제와 가야의 역학관계를, 전상학 연구원(전주문화연구원)은 무덤을 통해 전북

가야의 독자성과 역동성을 논하고, 조명일 연구원(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은 봉화의 축조기법과 구조에 관해, 유영춘 연구원(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은 철제 무구를 바탕으로 전북 가야의 대외 교류에 관해 발표한다.

이어 김재홍(국민대), 이도하 교수(한국전통대)는 각각 문헌 속 가야의 소국으로 알려진 기문, 반파국, 한수영 박사(호남문화재단연구원)는 전북지역 철기문화의 등장과 전개에 대해 고고학적 측면에서 발표한다.

또한 광장근 교수(군산대)는 제철유적과 그 동향에 관해, 유철 원장(전주문화유산연구원)이 가야문화유산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더 나아가 최장 이재운 교수(전주대)와

또다른 9인의 토론자들이 전북 가야의 성장과 위상을 논의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학술대회가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적 기반을 탄탄히 하고, 전북지역 가야 역사의 실체를 규명해 이해의 폭을 넓혀 도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참여 방식으로 유튜브에서 이를 생중계 할 예정이다.

유튜브 내 '전북가야 학술대회' 또는 '호남고고학회' (<https://youtube/dKtkaN5Trn0>)로 검색해 참여할 수 있다. /유호성 기자

글로벌청년과 함께하는 '전북트래블마트'

오늘까지 도내 주요 관광지서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강화

전북도가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과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2020 전북트래블마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트래블마트'는 도와 시군, 유관

기관(한국관광공사, 태권도진흥재단), 민간업체 등이 함께하는 공동협력마케팅 사업으로 올해 10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전북트래블마트에는 전북도를 비롯한 30여 개 기관이 국내 주요 관광업계, 언론·홍보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각 시군의 관광자원과 체험여행 상품을 홍보하는 여행상담회

와 관광설명회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12개국 35세 미만의 글로벌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제청년회의(글로벌청년 스마트관광 네트워크상)와 '외국인 인플루언서 SNS 홍보' 활동을 추가하며,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 홍보마케팅을 강화했다.

이날 '글로벌청년 스마트관광 네트워크상' 1부 행사는 '스마트관광 전북 관광활성화'를 주제로 각 나라 대표단 발표, 자유토론, 질의·응답 등의 회의

로 진행됐다.

이어 2부에는 글로벌청년 전북 관광 홍보 발대식을 통해 40명의 글로벌청년이 '전북도 안심관광 홍보단'으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이들 안심관광 홍보단은 시군의 비대면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안전여행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해외의 친구나 가족 등에게 전북의 숨겨진 매력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급속하게 변

화하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관광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관광활성화'를 주제로 유용규 KT 전남·전북법인 고객본부 본부장의 강연이 열렸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운영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전북트래블마트에서 각국의 청년이 선호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으며, 전북도는 이를 반영해 안심 관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호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 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